<h1>나 혼자만 레벨업-5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t1d27ec278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화</p>  
<p>모든 헌터들이 진우의 목소리를 들었다.</p>  
<p>"-!"</p>  
<p>"악기?"</p>  
<p>헌터들의 눈빛에 희망이 깃들었다.</p>  
<p>절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달리 헌터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.</p>  
<p>물론 진우가 틀렸다면 악기를 든 석상에게 접근하자마자 맞아 죽을 것이다.</p>  
<p>하지만 이 순간 진우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</p>  
<p>송 씨가 가장 먼저 악기를 든 석상 앞에 도착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송 씨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들어 올렸다.</p>  
<p>그러자 하프를 든 석상이 거짓말처럼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.</p>  
<p>따라라란- 딴딴-</p>  
<p>아름다운 음률이었다.</p>  
<p>"정말이다!"</p>  
<p>"다들 악기를 든 석상으로!"</p>  
<p>헌터들은 헐레벌떡 근처의 석상으로 달려갔다.</p>  
<p>나팔을 들고 있는 석상은 나팔을 불었고, 피리를 들고 있는 석상은 피리를 연주했고, 리라를 들고 있는 석상은 선을 퉁겼다.</p>  
<p>"헉, 헉, 헉."</p>  
<p>탈진 직전 상태였던 김 씨는 부주카를 든 석상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다.</p>  
<p>디링- 디링-</p>  
<p>석상이 연주를 시작하자 김 씨를 쫓아오던 신상이 걸음을 멈추었다.</p>  
<p>김 씨는 감정이 북받치는지 꿇어앉은 채로 굵은 눈물을 흘렸다.</p>  
<p>"으흐흐흐흑, 으흐흑..."</p>  
<p>신상이 휙 돌아섰다.</p>  
<p>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놈은 금방 다음 먹잇감을 찾아냈다.</p>  
<p>"젠장."</p>  
<p>신상과 눈이 마주친 진우가 욕지기를 내뱉었다.</p>  
<p>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.</p>  
<p>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.</p>  
<p>'왜! 왜 여기만!'</p>  
<p>진우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눈앞의 석상을 올려다보았다.</p>  
<p>북을 든 석상은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.</p>  
<p>쿵, 쿵, 쿵!</p>  
<p>신상이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혀왔다.</p>  
<p>거의 끝과 끝이었던 신상과의 간격이 점점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'혹시 나와 주희 씨 두 사람이 같은 석상 아래에 있어서 연주하지 않는 건가?'</p>  
<p>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다른 이들이 서 있는 석상들은 하나도 문제없이 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.</p>  
<p>'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.'</p>  
<p>진우는 주희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뛸 준비를 했다.</p>  
<p>"진우 씨..."</p>  
<p>겁에 질린 주희가 진우의 소매를 붙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차분하게 주희의 귓가에 속삭였다.</p>  
<p>"같이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어요."</p>  
<p>주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.</p>  
<p>소매를 잡은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그녀에게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주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 놓고는 맞은편으로 무작정 뛰었다.</p>  
<p>둥둥둥.</p>  
<p>뒤를 돌아보니 주희 뒤의 석상이 느릿하게 북을 때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'다행이다.'</p>  
<p>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였다.</p>  
<p>무사히 다른 석상으로 달려가는 것!</p>  
<p>아직 석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우뿐이었다.</p>  
<p>당연히 신상의 모든 분노가 진우 한 사람에게로 집중됐다.</p>  
<p>진우는 필사적으로 집채만 한 놈의 발을 피해 가며 방을 가로질렀다.</p>  
<p>쿵!</p>  
<p>쿵!</p>  
<p>넘어지고 구르고 하면서도 진우는 가까스로 신상의 발에 밟히지 않았다.</p>  
<p>"헉, 헉."</p>  
<p>비록 E급이긴 해도 전투계 헌터의 신체가 이럴 때는 큰 도움이 되었다.</p>  
<p>'조금만, 조금만 더!'</p>  
<p>진우는 신상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다리에 힘을 주었다.</p>  
<p>속도가 빨라졌다.</p>  
<p>석상까지의 거리가 불과 몇 걸음 남지 않은 상태였다.</p>  
<p>"그쪽이 아니야!"</p>  
<p>송 씨가 고함쳤다.</p>  
<p>신상의 움직임에 온 신경이 팔려 있던 진우가 깜짝 놀라 앞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아!"</p>  
<p>악기를 든 석상이 아니야?</p>  
<p>멀리서 보기에 악기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방패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.</p>  
<p>석상은 사정없이 방패를 내리찍었다.</p>  
<p>"헉!"</p>  
<p>진우가 옆쪽으로 몸을 날렸다.</p>  
<p>"꺄아아악!"</p>  
<p>주희가 비명을 질렀다.</p>  
<p>바닥을 구르던 진우가 고개를 들어 올리니 신상이 코앞에 있었다.</p>  
<p>"산 넘어 산..."</p>  
<p>구르면서 이마가 찢어졌는지 피가 흘러들어와 눈앞이 침침해졌다.</p>  
<p>시야가 좁아져 먼 거리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.</p>  
<p>진우의 고개가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다.</p>  
<p>'악기, 악기...'</p>  
<p>그러나 근처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악기를 든 석상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신상이 진우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다.</p>  
<p>"헉!"</p>  
<p>쿵!</p>  
<p>진우는 또다시 몸을 날려 간신히 신상의 발을 피했다.</p>  
<p>하지만 이제 정말로 한계였다.</p>  
<p>극심한 현기증이 일었고, 이상하게 균형을 잡기도 힘들었다.</p>  
<p>'제발...'</p>  
<p>신이 있다면 기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.</p>  
<p>그때 진우의 시야에 무기도, 악기도 아닌 것을 들고 있는 석상이 들어왔다.</p>  
<p>'저건?'</p>  
<p>진우는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.</p>  
<p>바닥을 기다시피 움직여 석상 앞에 도착했다.</p>  
<p>그리고 간신히 몸을 뒤집어 신상이 달려오는 쪽으로 돌아누웠다.</p>  
<p>더 이상은 움직일 여력이 없었다.</p>  
<p>"하아- 하아-."</p>  
<p>진우는 다가오는 석상을 마주 보며 거친 호흡을 몰아쉬었다.</p>  
<p>신상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진우가 무척이나 성가셨는지 아까보다 더 심하게 구겨진 얼굴이었다.</p>  
<p>신상이 진우의 앞에 똑바로 섰다.</p>  
<p>고층 빌딩만 한 녀석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숨이 턱턱 막혀 왔다.</p>  
<p>"하아- 하아."</p>  
<p>다 잡은 쥐라고 생각하는 걸까?</p>  
<p>신상은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했다.</p>  
<p>'끝이다...'</p>  
<p>진우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신상의 두 눈동자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예감했다.</p>  
<p>그러나 그때.</p>  
<p>우우우-</p>  
<p>뒤편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아름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틀어 뒤쪽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우우, 우우우-</p>  
<p>책을 들고 있는 석상이 입술을 움직일 때마다 성스러운 노랫소리가 내부를 메아리쳐 울렸다.</p>  
<p>우우우, 우-</p>  
<p>신상의 얼굴이 서서히 이전의 표정을 되찾아 갔다.</p>  
<p>흉측하게 구겨졌던 얼굴 근육이 말끔히 펴졌다.</p>  
<p>신상은 석상들의 노래와 연주가 모두 끝나자 돌아섰다.</p>  
<p>그리고 다른 석상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.</p>  
<p>쿵!</p>  
<p>신상이 앉는 소리가 신전 안을 울렸다.</p>  
<p>"하아, 하아, 겨우, 세이프인가?"</p>  
<p>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반대쪽에 있던 주희가 진우에게로 달려왔다.</p>  
<p>"진우 씨!"</p>  
<p>전속력으로 달려온 주희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 옆에 주저앉았다.</p>  
<p>"어쩌면 좋아... 어떡하면 좋아..."</p>  
<p>주희는 가지고 있는 모든 마력을 다 써 가며 치료 마법을 시전했다.</p>  
<p>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.</p>  
<p>흩어져 있던 헌터들이 하나둘 진우의 주위로 몰려들었다.</p>  
<p>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.</p>  
<p>"어떡해... 진우 씨..."</p>  
<p>그 와중에도 주희는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다.</p>  
<p>다들 왜 그러지?</p>  
<p>진우가 입을 뻐끔거렸다.</p>  
<p>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.</p>  
<p>하는 수 없이 진우는 삐걱거리는 상체를 일으켰다.</p>  
<p>"...?"</p>  
<p>아래쪽이 피투성이였다.</p>  
<p>진우는 뒤늦게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렸다.</p>  
<p>"아..."</p>  
<p>오른쪽 무릎 아래가 사라져 있었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방패를 든 석상에게로 옮겨 갔다.</p>  
<p>놈의 방패 끝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.</p>  
<p>사라진 다리는 그 아래에 있었다.</p>  
<p>뚝-</p>  
<p>뚝-</p>  
<p>주희의 코에서 핏방울이 흘러나왔다.</p>  
<p>이미 주희의 신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증거다.</p>  
<p>B랭크 헌터의 치유 마법으로 절단된 신체의 복구는 불가능했다.</p>  
<p>밑 빠진 독에 물 붓기.</p>  
<p>주희의 체력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.</p>  
<p>"됐어요... 주희 씨. 이제 그만..."</p>  
<p>"내가 치료해 줄게요! 내가 낫게 해줄게요!"</p>  
<p>헌터들은 두 사람을 보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이곳에 들어섰던 17명 중 여섯 명만이 남았다.</p>  
<p>그 여섯 명 중에서도 두 명은 끔찍한 중상을 입었다. 송 씨는 팔을 잃었고, 진우는 다리를 잃었다.</p>  
<p>목숨은 건졌지만 누구도 웃을 수 없었다.</p>  
<p>그때 또다시 굉음이 울렸다.</p>  
<p>구구구구구-!</p>  
<p>마법진이 그려진 신전의 중앙 부분이 불쑥 솟아올랐다.</p>  
<p>진우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.</p>  
<p>'신앙심을 증명하라...'</p>  
<p>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바였다.</p>  
<p>5. 마지막 시험</p>  
<p>신전 중앙의 바닥에 새겨진 원형의 마법진은 계단 두 개 정도의 높이만큼 솟아오르더니 움직임을 멈췄다.</p>  
<p>"제단..."</p>  
<p>진우의 혼잣말에 헌터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.</p>  
<p>'제단?'</p>  
<p>'방금 분명 제단이라고...'</p>  
<p>앞선 두 번의 위기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은 등급 높은 각성자가 아니라 평소 E급이라며 무시하던 진우였다.</p>  
<p>'성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들은...'</p>  
<p>헌터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.</p>  
<p>현 상황에서 진우의 말은 생명줄과도 같았다.</p>  
<p>그런 진우가 무심코 꺼낸 단어 '제단'.</p>  
<p>눈치 빠른 김 씨가 요지를 캐치해냈다.</p>  
<p>"알겠다, 알겠어."</p>  
<p>김 씨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꺼냈다.</p>  
<p>원래는 마수를 베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이놈이 꼭 필요했다.</p>  
<p>"아무리 무식한 나라도 이쯤 되면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잡히는구만."</p>  
<p>헌터들은 시퍼렇게 날이 선 김 씨의 검을 보고 마른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"어이, 김 씨. 갑자기 장비는 왜 꺼내고 그래?"</p>  
<p>"말로 하자고, 말로."</p>  
<p>멤버들 중 가장 랭크가 높은 C급 헌터 송 씨가 중상을 입은 지금, D급에서도 꽤 강한 실력을 지닌 김 씨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김 씨는 검끝으로 제단을 가리켰다.</p>  
<p>"마지막 규율, 신앙심을 증명하라. 그리고 갑자기 중앙에 생긴 저 제단."</p>  
<p>김 씨의 시선이 진우에게로 옮겨 갔다.</p>  
<p>"요컨대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거 아니야, 성 씨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그의 생각도 그러했다.</p>  
<p>살아남은 여섯 명 중 누군가 한 사람은 제물이 되어야 한다.</p>  
<p>'아마도 그게 마지막 규율...'</p>  
<p>진우가 내린 결론이었다.</p>  
<p>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보니 이리로 다가오는 김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의 이마 옆으로 땀방울이 하나 길게 흘렀다.</p>  
<p>"아저씨... 무슨?"</p>  
<p>"자네는 암말 말고 가만히 있어!"</p>  
<p>버럭 소리친 김 씨가 진우 옆에 앉아 진우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송 씨에게 검끝을 향했다.</p>  
<p>"우리를 여기로 끌고 온 사람이 누구야? 여기 있는 송 씨 아니야? 그럼 송 씨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?"</p>  
<p>"아저씨!"</p>  
<p>진우가 발끈하여 일어서려 하자, 송 씨의 고목 껍질 같은 손이 막았다.</p>  
<p>진우는 송 씨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송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그의 눈빛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부탁하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속으로 삼켜야 했다.</p>  
<p>송 씨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"김 씨 말이 맞어. 내가 책임을 져야지."</p>  
<p>"이제 말이 통하네, 영감."</p>  
<p>김 씨가 검을 제단 쪽으로 까딱거렸다.</p>  
<p>"알았으면 얼른 가자고. 영감 덕분에 죽은 사람이 벌써 10명이 넘었으니까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